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2024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외 2월 동향

#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Looking ahead: The audit committee agenda in 2024」

##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 딜로이트는 2024년 감사위원회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할 만한 주요 항목을 살펴봄

- 규제 관련 사항

구분	고려사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시 통제 및 절차의 적절성을 강조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공시 통제 및 절차를 엄격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 또는 공시에 대해 제3자의 보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회 감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인적자본관리, 이사회 다양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자원 추출 회사의 지급 등의 규정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li> </ul>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수행 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 회사의 법률 및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PCAOB 감사 기준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PCAOB 검사 보고서 검토 및 회사 감사에 대한 PCAOB 검사 여부와 회계법인이 검사 결과의 증가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등 외부감사인 평가시 이를 고려토록 장려</li> </ul>

- 리스크

구분	고려사항
인공지능(AI) 및 기타 기술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사용 증가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리스크 감독 필요</li> <li>• 감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등 위반 발생시 감사위원회가 크게 관여할 것이며, 회사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 여부, 보고 시기 및 위반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결정해야 함</li> </ul>
기타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지침의 적절성 및 실용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운영 고려 필요</li> </ul>

- 재무인재

- 기존 재무·회계 인재 유지 및 채용 문제, 더 많은 기술력의 필요성 등으로 조직의 재무·회계 인재의 필요성을 높이며, 감사위원회는 기존 인재와 미래를 위한 승계계획에 대한 집중 필요

-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 감사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자체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품질 향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위원장이며, 최고의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와의 주요과제임

다운로드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Deloitte Global Program, 「Time to rethink talent in the Boardroom」

##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 ▶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이해관계자의 기대치 변화, 기후행동에 대한 요구,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진전의 필요성, 경제, 정치, 보건,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조직의 역할이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있음
- ▶ 조직과 이사회가 인재와 노동력의 미래에 대처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은 50여개국의 약 500명의 이사회 구성원과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많은 응답자들은 이사회가 인재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직에서는 이사회와 다양한 안건들 사이에서 인재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이사회가 인재의 미래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사들이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이사회는 어떻게 인재 전략을 조직의 전략과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했습니까?
2	이사회는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야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 안건의 핵심 요소(즉각적인 운영 과제부터 장기적인 전략 및 고려사항에 이르기까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3	이사회가 중요한 인재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습니까?
4	이사회는 광범위한 기업 전략과 함께 인재 전략을 재고하거나 검토하는 적절한 주기를 고려했습니까?
5	이사회가 인재 전략을 적절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거나 외부 전문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인재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3 (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율

-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 및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함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규율화

-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함
-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함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은행	금융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 이상 운용자산 20조 이상 종합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 미만 운용자산 20조 미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 (1년) → 3단계(2년) → 4단계(3년)

###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 규율

-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함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함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률시행일인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5 (월) 금융감독원

##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금융감독원 2024년도 12대 핵심과제 중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살펴봄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핵심과제 9번)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

### 1. 책임경영 문화 정착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유도

-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 점검
-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검토
-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
-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 실무기준 마련

### 2.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추진

-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등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 \* 인력·조직 규모 적정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위한 경영방침 등
-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사례\*를 업계와 공유하여 개선 유도, 반복되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 추진
  - \* 해외점포 금융사고 미보고, 금융사고 유형 오분류, 금융사고 금액 산정 미흡 등
- 신분증 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고 차단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

다운로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1. 목표

□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시장 건전한 '책임경영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요 업무로 삼아 주요업무(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4년 12대 핵심과제 중 '책임경영 문화 정착'은 건전한 지배구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2024년 12대 핵심과제 중 '책임경영 문화 정착'은 건전한 지배구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2024년 12대 핵심과제 중 '책임경영 문화 정착'은 건전한 지배구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2024년 12대 핵심과제 중 '책임경영 문화 정착'은 건전한 지배구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 (목) 금융감독원

##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 '23년말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1,212사로 전년 (37,519사) 대비 3,693사(9.8% ↑) 증가하였으나, '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309사(15.6% ↓) 급감함

### '23년도 외부감사대상 현황

- 비상장사가 37,947사로 대부분 (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 (6.4%), 유한회사 623사 (1.5%) 순임
  - 비상장 주식회사 (10.3%)와 유한회사 (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 (3.9%)을 크게 상회함

<표1>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분	주식회사					비상장	유한회사 (비상장)	합계
	주권상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2년 (비중)	819 (2.2)	1,591 (4.2)	132 (0.4)	2,542 (6.8)	34,411 (91.7)	36,953 (98.5)	566 (1.5)	37,519 (100.0)
'23년 (비중)	833 (2.0)	1,680 (4.1)	129 (0.3)	2,642 (6.4)	37,947 (92.1)	40,589 (98.5)	623 (1.5)	41,212 (100.0)
증감 (증감률)	+14 (+1.7)	+89 (+5.6)	△3 (△2.3)	+100 (+3.9)	+3,536 (+10.3)	+3,636 (+9.8)	+57 (+10.1)	+3,693 (+9.8)

### '23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3년 말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축소됨

<표2>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a)	'23년(b)	증감(b-a)	
전체	지정회사(A)*	699	1,224	1,521	1,969	1,976	1,677	△309
	전체 외감(B)	31,473	32,431	31,744	33,250	37,519	41,212	3,696
	지정비율(A/B)	2.2	3.8	4.8	5.9	5.3	4.0	△1.3
상장	지정회사(A)*	284	807	1,060	1,256	1,152	994	△158
	전체 상장사(B)	2,230	2,326	2,382	2,457	2,542	2,642	100
	지정비율(A/B)	12.7	34.7	44.5	51.1	45.3	37.6	△7.7

\*지정시점 기준 예: '23년에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3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실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29 (월) 금융감독원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할 예정임
- ▶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구분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매출액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미반영</li> <li>• B사는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li> </ul>
발생원가의 과대계상 (→매출액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사는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li> <li>• D사는 사업종료 후 원가를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원가로 계상하는 등의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치</li> </ul>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매출액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 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 부당 가산</li> <li>• F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발주사로부터 물품인도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요청 받고 수용했으나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 미차감</li> </ul>
우발부채, 총당부채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가 하락임에도 PF대출지급보증 금액을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음</li> <li>•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총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li> </ul>

- ▶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구분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 확인 및 반영 필요</li> <li>•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 필요</li> <li>•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 등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제외</li> <li>• 우발부채 공시 및 총당부채 인식 여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li> <li>•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li> </ul>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 필요</li> <li>• 선급금 투입여부 및 활동별 원가 집계 적정성 확인 필요</li> <li>•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시장상황,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li> <li>• 우발부채·총당부채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 필요</li> </ul>

-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해 '24년 중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26 (금)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유의사항	위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 확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었으나 이를 미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자원·인력 등 충분히 투입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 미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누락 여부 확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미첨부</li> </ul>

### 2.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유의사항	위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 미이행</li> </ul>

### 3.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의무

유의사항	위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 표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사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li> </ul>

▶ 금융감독원은 '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네이버, 투명성·공정성 높일 '뉴스혁신포럼' 출범 [뉴스핌]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투명성 강화 [전국매일신문]
- 한화, 임직원부터 'RSU 바로 알기'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소통 강화 [더구루]
- 아모레퍼시픽, 푸마 등 CDP 평가 A등급 획득으로 기후변화 정책 투명성 제고 [컨슈머와이드]
- 금감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한 감사부담 완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아세안익스프레스]



## 부정행위방지

- 대주주 자사주 악용 막고 투자지표 비교 공시한다 [매일경제]
- 카카오, 준법 및 윤리 경영 감시 목적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정기회의 [매일일보]
- 감사원, 재정누수 감시 강화 목적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신설 [연합뉴스]
- AMR, 글로벌 데이터 유출 기술 시장 2031년까지 연평균 12.3% 성장 예측 [지티티코리아]



## 규제 동향

- 은행권, 내부통제 책임 범위 정한 '책무구조도' 연말까지 제출해야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수주산업 결산·외감 유의사항 마련 [머니투데이]
- 금감원 "비상장사도 자산 5000억 넘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해야" [데일리안 미디어]
- 9대 정책 과제 제시...부동산 리스크·가계부채 관리 집중 [뉴스웨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제 법제화 대응 방안 논의 위한 ESG 세미나 개최 [해럴드경제]
- 금융위, 인수·합병 시 외부평가제도 개선 및 공시 강화 [KBS뉴스]
- 기업 M&A 배경·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화 [세계일보]
- 금융위원회, 전환사채(CB) 발행 시 공시의무 강화 [뉴스1]
-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 M&A

- 은행 의존도 커진 금융지주...보험사 M&A 시장 '노크' [연합인포맥스]
- 국내외 곡물기업 인수합병 통한 외형 확장으로 시장점유율 높여 [한돈뉴스]
- 불황에도 적극적 M&A로 몸집 불리기 나선 게임 기업들 [비즈니스포스트]
- HMM M&A 시장 큰손으로 등장하나 [중소기업신문]
- 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 봄바람 불어오나 [이데일리]
- 국내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기 전망 [서울경제]
- 글로벌 에너지 업계 인수합병(M&A)근황 [한국경제]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일본 경제 저성장 탈피...기업 지배구조 개선 뒷받침 [뉴스핌]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지배구조와 세금 [연합뉴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기업의 미 이행 현황 [연합뉴스]
- 삼성전자 MSCI ESG평가서 'AA' 등급,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 [비즈니스포스트]
- LG생활건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모든 분야서 맹활약 [아시아투데이]
- DB금융, 지배구조 이슈 극복 모범 사례 [대한경제]
- 금융위, 대표·임원 내부 통제 책임 범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 현대차그룹주, 저평가 주식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아시아타임즈]
- 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 기본 방향 내놨다 [일간국세신문]
- 롯데그룹, 전 상장사에 CEO 승계정책 명문화 [매거진한경]
- 엔케이맥스, 최대주주 반대매매 여파 송구...주가안정·지배구조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 이사회·감사위원회

- 금융지주 사외이사 67% 임기완료...'교수님 이사회' 확 바뀔까 [연합인포맥스]
- SK그룹, 사외이사 정례모임 확대...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혁신' 가속 [매거진한경]
-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 5개 위원회 운영 [연합뉴스]
- NXC 이사회 개편..."다양성과 전문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사회 역할 핵심 [ESG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에 손혁·박주형 교수 [한국경제]
-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 마케팅 통합서비스 '원 디지털 마케팅' 출범 [매일경제]
- 한경협, 김앤장·딜로이트 안진과 'ESG 아카데미' 4월 개최 [뉴스1]
- 제2차 회계대전서 딜로이트안진 대약진...6곳 중 4곳 수임 [한국경제]
- 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광장,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 딜로이트 그룹 '스포츠 팬인사이트 연결과 개인화로 몰입형 스포츠 시대 개막'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리뷰]
- 딜로이트, 생성형 AI 기업 서베이 발간 [한국일보]
- 딜로이트 안진, 국민은행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 참여 [파이낸셜뉴스]

# 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YouTube]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 - '24년 달라지는 거버넌스 아젠다



영상보기

QR 코드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024년 달라지는 거버넌스 아젠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를 소개함</li> <li>• 기업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이 마련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가 강화될 예정임</li> <li>• 현행은 사업보고서 제출시 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평가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나, 공시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li> <li>•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이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되었으며, 평가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외에,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됨</li> <li>•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li> <li>• 2024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기준에 따른 평가·보고 수행 가능</li> </ul>

# V. 주요 행사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2월 5일, 딜로이트 안진이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 학술상)' 시상식이 한국 딜로이트 그룹 본사에서 개최됨</li> <li>Honors Award(공로상)에 손혁 계명대 교수,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에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연구활동으로 회계학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초대 수상자로 선정됨</li> <li>본 '학술상'은 한국회계학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교수들의 활동 기간은 1년임</li> <li>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학자들의 연구활동은 회계학 분야의 발전과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밑거름이 된다고 앞으로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 학자들의 인사이트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li> </ul>
수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진 학술상 Honors Award (공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 학자</li> </ul> </li> <li>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 (신진학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li> </ul> </li> </ul>
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nors Award(공로상) 분야: 손혁 계명대 회계학전공 교수</li> <li>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박주형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li> </ul>

기사보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달로이트 Global Boardroom

### [웨비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세계적 관점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3월 7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 세계 이사회가 어떻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이 조직 내에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적극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임</li><li>• 선도적인 이사회는 어떻게 이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는지 확인할 예정임</li><li>• 특정 국가의 성별 할당제로 인해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낙후된 조직에서 이사회와 의장이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높이며 모두가 성장하는 직장을 조성하는 문화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li></ul>

신청하기

QR 코드



달로이트 Global Boardroom

### [웨비나]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변화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6월 6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이사회 의장 및 임원 패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사회는 기업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이사회는 직원, 고객, 더 넓은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것임</li><li>• 이사회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임</li><li>• 선도적인 이사회가 사회전반에서 이사회 역할에 어떻게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li></ul>

신청하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FR Regulation (상/하)</li> <li>2. ICFR 감사방법론</li> <li>3. 위험평가</li> <li>4. 범위선정</li> <li>5. 통제활동 (상/하)</li> <li>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li> <li>7. 운영평가 (상/중/하)</li> <li>8. 모니터링 및 보고</li> <li>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li> <li>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li> <li>11. 자동통제 (상/하)</li> <li>12. Post ICFR 운영방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li> <li>• 2023년 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li> </ul>

신청하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 <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 <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 <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 <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 <li>6. 요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 <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 </ul>

동영상 보기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